

목포권

홍도 유일 갯돌해수욕장 방파제 공사로 사라진다

중간 가로질러 수년째 공사 자갈 대부분 파도에 쓸려가

천연 기념물 170호이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제478호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의 유일한 갯돌(갯돌)해수욕장이 목포 해양수산청의 방파제 공사로 훼손되고 있다.

홍도 갯돌 해수욕장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해수욕장 중간을 가로질러 폭 20m, 높이 2~3m, 길이 150m 규모의 방파제 공사를 수년째 계속하면서 파도에 휩쓸린 자갈이 3t 규모의 삼각돌 콘크리트 구조물(테트라포트)안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못하고 쌓이는 바람에 바위가 드러나는 등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

이때문에 해수청의 방파제 위치 선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김모씨(56·흑산면 홍도리)는 "홍도 1구에 물량장과 방파제를 구축하면 여객선 접안은 물론 이 지역 어선 11척을 피할수있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양수산청의 주먹구구식 공사로 홍도 유일의 해수욕장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홍도 1구를 연안항으로 지정, 접안 시설을 마련하면 해수욕장에 설치한 방파제는 없어지고 갯돌도 보존 될 것"이라며 "목포 해수청의 무분별한 공사로 천연 기념물이 망가지고 있어 홍도 1구 방파제 공사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청 관계자는 "홍도 1구는 연안항이 아니다. 홍도는 여름과 겨울에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 해수욕장과 그 반대편에 접안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지역 '화기 방화' 급증

최근 5년간 73건...전체 화재건수 7.7% 올 상반기 화재 109건 인명피해 12명

최근 목포권(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일대에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화재는 73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건수인 946건의 7.7%를 차지했으며 5년간 대비 5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1년의 경우 10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나 2003년 12건, 2004년 16건, 지난해에는 2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를 상대로 한 방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방화사건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목포시 대연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3대가 방화로 전소되기도 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날이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소외받은 율분을 참지못해 방화를 저지른 경우도 적지않

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방화를 예방하는 데는 해당 부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목포지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에서는 화재발생건수는 늘고 재산피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상반기 목포권에서는 10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12명의 인명피해와 5억6천여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화재 3건(2.8%), 인명피해 4명(50%)이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5억6천여만원(51%)이 감소했으며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이 22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동척 목포지점 역사교육장으로

(東拓=동양척식회사)

건물 복원 마쳐...20일부터 특별사진전

일제강점기 대표적 경제수탈 기관이었던 옛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이 건물복원을 마치고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사진)

목포시는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의 역사상과 전남도에 유일한 근대상업건축양식을 지닌 옛 동양척식회사 건물을 단장해 일제침략사 및 목포의 근대사를 담은 '특별사진전'을 20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1층 전시실에는 1920년대의 잊혀져 가는 목포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생생한 사진영상으로 채워져 있으며, 2층 전시실에는 사진연구가 정성길씨(65·한국문화홍보센터)가 최초로 공개하는 일제의 만행과 고종의 최후의

근대사를 담은 '특별사진전'을 20일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1층 전시실에는 1920년대의 잊혀져 가는 목포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생생한 사진영상으로 채워져 있으며, 2층 전시실에는 사진연구가 정성길씨(65·한국문화홍보센터)가 최초로 공개하는 일제의 만행과 고종의 최후의



모습 등을 담은 귀중한 사료들이 전시된다. 이번 동척복원을 기념하는 일제 만행 사진전 개최로 역사인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로 수학여행 오세요

수도권 교장 38명 초청 목포시 20~21일 팸투어

목포시는 수도권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월 충청지역에 이어 20일, 21일 양일간 서울·경기·인천지역 중학교 교장단 38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는 수학여행 시장 중 지역별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의 교장단에게 새로운 수학여행지

인 목포와 서남권을 알리기 위한 것.

목포시는 자연사박물관과 씨월드 초등학교(주)·목포여·청소년 수련관·초원관광여행사 등이 참석하는 수학여행 상품 설명회를 개최, 서남권 수학여행의 매력과 질 좋은 프로그램 소개 등 체험거리들을 가미해 실질적인 수학여행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상품 홍보로 미

래 수학여행단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목포 경유 씨월드 고속훼리(주)를 이용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7.8%에 달하는 90% 이상 안락했고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올 3월 수학여행단 유치 리플렛을 전국 학교 및 여행사에 발송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지역 단신/

무안 역사사 주말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제85호인 무안 역사사(조실 경순스님)가 주말 산사체험(템플스테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일반인, 초·중·고교생 개인 및 단체이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관화 체험(반야삼경)등이며, 참가비는 1박2일 기준 3만원. 주말 산사체험 참여 희망자는 무안 역사사 홈페이지(www.yaksasa.net)나 종무소(☎061-453-2422)로 신청하면 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관광목포' 민간운영업체 재공고

목포시가 2006 관광목포 시티투어 민간운영업체를 재공고한다.

목포시는 지난 5월 공모 결과 공고안의 신청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업체가 없어 무산된 시티투어 민간업체 선정을 위해 신청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참여 기준을 완화했다. 목포시는 개인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19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8월1일부터 10일까지 목포시청 관광기획과에서 공모 신청서를 접수 운영업체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업체가 선정돼 시티투어가 재개될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매일 1회 이상 시내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various statistics like '여수', '광안', '보성' etc.

사립유치원 교구확충비용 목포교육청 1억여원 지원

목포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구·학습 자료 개발 연구비와 교재·교구 확충비를 지원했다. 목포교육청은 최근 개발 연구비 8천200만원과 교재·

교구 확충비 2천400만원 등 총 1억600여만원을 목포지역 23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 목포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유아 발달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고 구입하여 교구, 학습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유치원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tlee@

목포시는 수도권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월 충청지역에 이어 20일, 21일 양일간 서울·경기·인천지역 중학교 교장단 38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한다.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Seafood Festival' (제주도 자리돔 축제)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and a list of participating restaurants.

Large advertisement for 'Ch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job openings for public servants, police, and teacher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 grid of real estate advertisements from various agencies, including '대인동업부동산', '비전공인중개사', '인애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컨설팅(주)', '하이랜드 컨설팅', and '전원공인중개사'.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